

## 내 신앙적 습관은?

- 장혁재 / 2003. 7. 23 -

남성 듀엣 소리엘 멤버, ARTEL ministry 대표, CBS FM '장혁재의 라디오헤븐' 진행

학원을 다니면서 강의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던 선생님께서“애들아! 너희가 왜 재수를 하는 줄 아니?”라고 물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지만, 그 선생님은 한마디로“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 대학에 갈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공부가 습관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이곳 저곳에서 수군 거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준비하고, 반복하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몰라도, 모르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즐기고, 더러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장로님, 권사님 세대에서는 기독교인 하면, 새벽예배, 수요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저녁예배까지...거기에 주중의 모임까지 합치면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길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습관이 봉사와 모임으로 고정되어 가면서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예전과 지금의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몸살일 것입니다.

여기에 신세대 크리스천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철저한 주일 성수교육이 어렸어 이 되어서는 주일예배 1번으로 예배습관이 굳어져, 한번의 주일예배가 크리스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 삶을 누리는 안도의 모습은 21세기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년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활습관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문화적 충격을 이겨 나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종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많아서 전도를 한 사람이 꾸준하게 진솔한 삶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큰 충격 없는 시스템을 적절히 응용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좋지않은 습관 중 '회개의 습관'이 있는데, 교회를 1년, 2년 다니면서, 초기에는 민감했던 죄의 문제들도 평소의 삶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큰 관련 없이 살다가 1년에 한 두번의 수련회나 부흥회때 가서 쏟아 붓고 나와서 자신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죄 사함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 바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치열한 문화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깨끗하게 살 수 있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는 습관, 남을 인정하는 습관, 성령님의 움직임에 순종하는 습관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습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